

디자이너가 꿈꾸는 바로 그것!

STYLE UP, CHAIR

의자 전문 디자이너는 없다. 하지만 유명 건축·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것은 건축도 인테리어도 아닌 '의자'다.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슨 하면 개미 의자를, 디자이너 베르너 폰톤 하면 판톤 의자를 떠올리듯 말이다. 슈퍼 디자이너들에 의해 탄생된 극적이고 독특한 의자들. 걸출한 디자인을 배출한, 터 좋은 이탈리아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들여다봤다. 에디터 김윤정 일러스트레이터 조성희 도움말 에이투스(02-3785-0860), 웰즈(02-511-7911) 참고 문헌 <의자와 함께한 20세기 디자인>(일렉산더 폰 페게작, 로렌스제프리스), <트렌드를 읽는 기술>(헨릭 베일가드, 비즈니스북스), <디자인이 브랜드와 만나다>(유정미, 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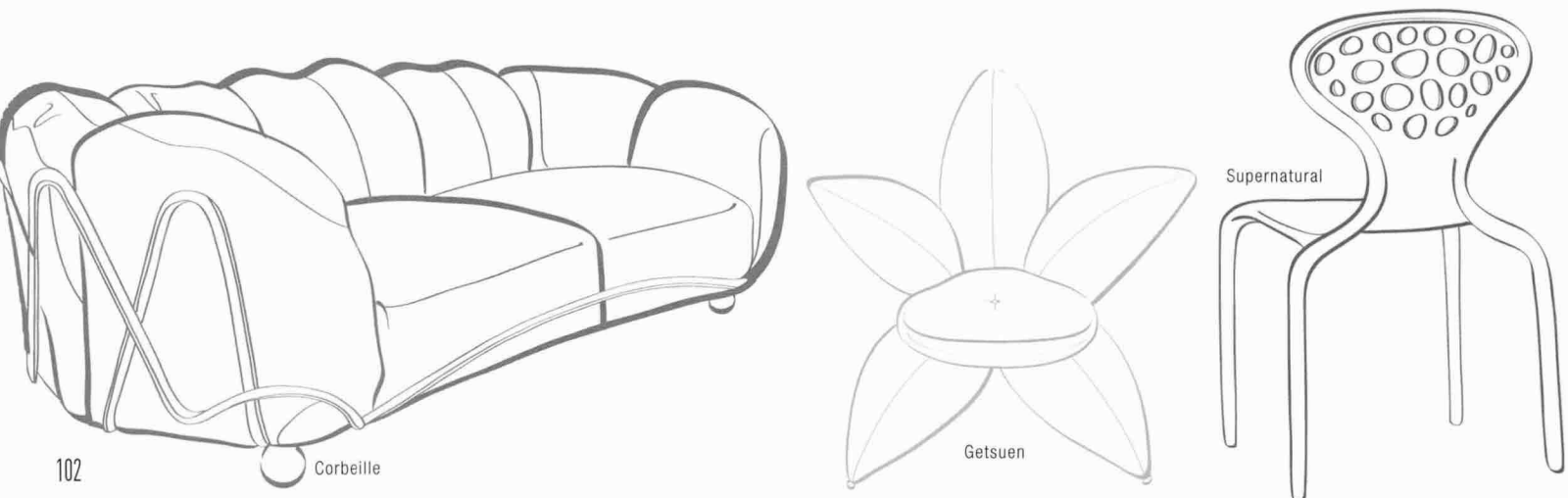
에디터 김윤정 일러스트레이터 조성희 도움말 에이투스(02-3785-0860), 웰즈(02-511-7911) 참고 문헌 <의자와 함께한 20세기 디자인>(일렉산더 폰 페게작, 로렌스제프리스), <트렌드를 읽는 기술>(헨릭 베일가드, 비즈니스북스), <디자인이 브랜드와 만나다>(유정미, 시공사)

ITALY

발칙한 상상을 더해 예술로 진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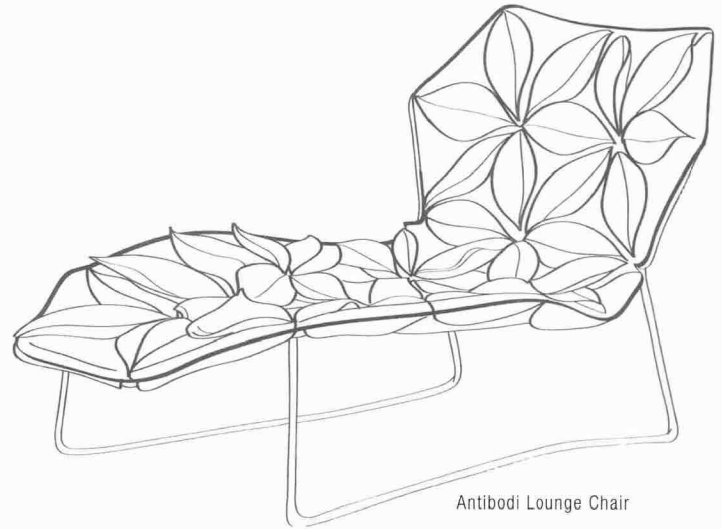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마차를 제작하는 공예인이었고, 아버지는 엔티크를 취급하는 판매업을 하다 가구 디자인과 제작에 관련한 사업을 하셨죠. 디자이너란 직업은 마치 뿌리부터 이어진 운명 같은 거였어요.” 이탈리아의 유명 가구 브랜드 프로메모리아(Promemoria)를 탄생시킨 디자이너 로메오 소치(Romeo Sozzi)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한 말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며 균형과 색상, 서로 다른 목재들의 배합, 고급 목재 취급법 등 정교한 가구 제작에 필요한 기량을 자연스럽게 익힌 그는 희귀한 자재들에 열정을 쏟고 디테일에 집착했으며, 장인 정신을 무한히 존중했다. 비단 그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에는 100년, 200년씩 대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로메오 소치인 셈이다.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드는 로메오 소치처럼 큰 명예나 돈을 바라지 않고 팍과세월로 이어온 장인 정신에 세련된 감각과 탁월한 손재주를 더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이탈리아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가구의 유명세와 우수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터. 가구의 트렌드와 흐름을 알기 위해 이탈리아를 찾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매년 4월 개최되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 세계 약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고, 이들의 눈과 입을 통해 가구의 흐름이 결정될 정도다. 그런 이탈리아 디자인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을 지나며 다듬어진 이탈리아만의 조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Tok



Antibodi Lounge Chair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 의자 디자인만 보더라도 같은 모던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비해 꽤 장식적이다. 발칙한 상상력이 더해져 때론 유쾌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가구의 개념을 넘어서 예술 작품인 셈이다. 공간 어디에 들여다놓아도 아름다운, 그런 오브제 말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제대로 된 이탈리아 가구로 채우고 싶다는 꿈을 꾸는 건지도 모르겠다.

시대의 거장들, 이탈리아 디자인을 창조하다

이탈리아인의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스타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을 빼고 이탈리아 디자인을 논할 수 없다. 1949년 프랑스 파리 태생의 필립 스타크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감각과 공학에 대한 정열을 지닌 '디자인계의 제왕'. 1980년대 초부터 드리아테(Driade)의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그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제품 디자인에 이르는 토탈 디자인의 화려한 창작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상당히 에로틱하면서도 유머러스하다. 대표 작품은 여성의 허프 라인을 본뜬 '에로스'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이용해 연결 부위 없이 전체를 한 통으로 연결한 '고스트' 시리즈. 모두 이탈리아 카르텔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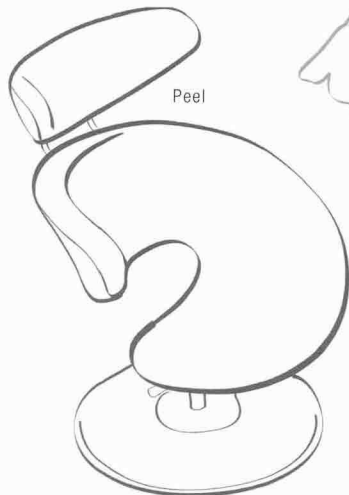
위해 디자인한 것이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트리샤 우르퀴올라(Patricia Urquiola)도 필립 스타크 이상의 유명세를 탄 디자이너 중 하나다.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모로소(Morosò)에서 선보인 다수의 작품을 통해 명성을 얻었으며, 대표작으로는 꽃잎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안티보디 라운지 체어 가 있다.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커버는 펠트와 울, 울과 가죽의 재질 조합이 가능하고, 양면은 블랙 & 화이트를 비롯해 내추럴한 색상이나 다양한 패치워크의 조합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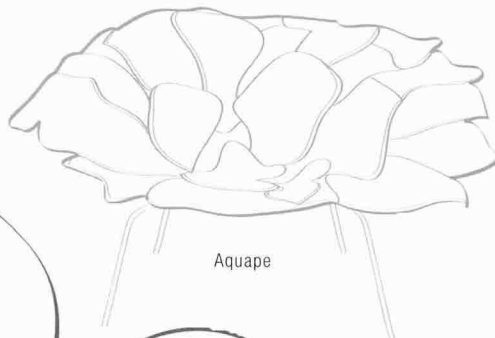
이들 외에도 1958년 웨일스 출생의 로스 러브그로브(Ross Lovegrove)와 건축가, 교수, 그리고 아티스트이기도 했던 지오 폰티(Gio Ponti, 1897~1979)가 있다. 로스 러브그로브는 카르텔, 카펠리니, 필립스, 드리아테, 애플컴퓨터, 테크노어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많은 국제적 디자인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의 디자인은 세계의 많은 디자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다. 한편 란치아, 베니니, 마렐리 등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한 지오 폰티는 1928년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 설립과 함께 이탈리아 모던 디자인의 개혁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디자인계의 혁명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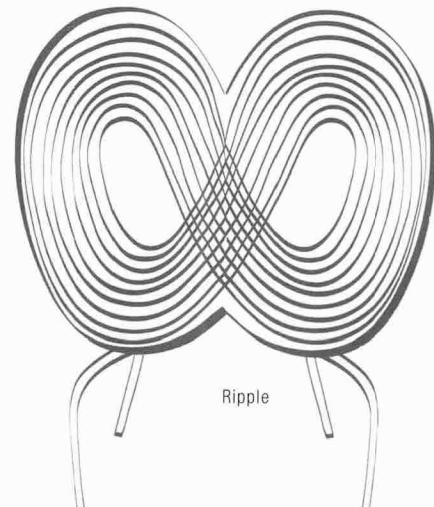
MT3 Rocking Armchair



Peel



Aquape



Ripple

S C A N D

질리지 않는 멋과 자연의 안락함을 담아내다

요즘 뉴욕도, 서울도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으레 ‘스칸디나비아풍’ 일색이다. 신사동 가로수길의 카페들만 들여다봐도 그 자체가 북유럽 가구 전시장을 연상시킬 정도니 말이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북유럽 가구의 담백한 디자인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트렌디하고 어디에도 멋지게 어울린다. 바로 그런 점이 트렌드세터의 디자인 감성을 교묘히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 디자인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디자인 정서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레고 장난감, 이케아 가구, 볼보 자동차, 뱅앤올룹슨의 오디오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다. ‘더하고 꾸미는’ 이탈리아 등의 디자인과 달리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최대한 빼나가는’ 스칸디나비아의 미니멀 디자인은 화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며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다. 그래서인지 1930년대 기능주의와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일 정도다. 1930년대 인기를 모았던 아르네 야콥센의 ‘엔트 체어’와 ‘에그 체어’ 같은 디자인만 떠올려도 금세 공감할 수 있으리라.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은 지형적인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인테리어 디자인이 발달했으며, 울창한 삼림이라는 자연 환경은 최상급 목재 가구를 탄생시켰다. 거기에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은 안락하고 편리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덴마크 디자인은 코펜하겐 항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외국적이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가구는 로즈우드로 제작됐으며 이집트, 아프리카 혹은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현재 가장 훌륭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임을 자부한다.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사물 고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는 디자인, 빠르고 쉽게 변하는 트렌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매력에 푹 빠지는 이유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뒤엔 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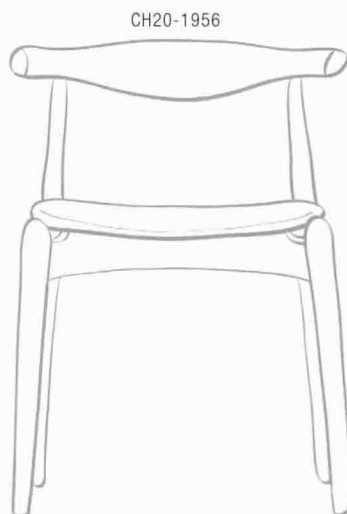
병아리가 막 빠져나간 듯 반으로 쪼개진 달걀 모양이 시선을 끈다. 이 의자의 이름은 ‘에그 체어’. 덴마크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 1902~1971)이 코펜하겐의 한 호텔 로비에 놓기 위해 디자인한 의자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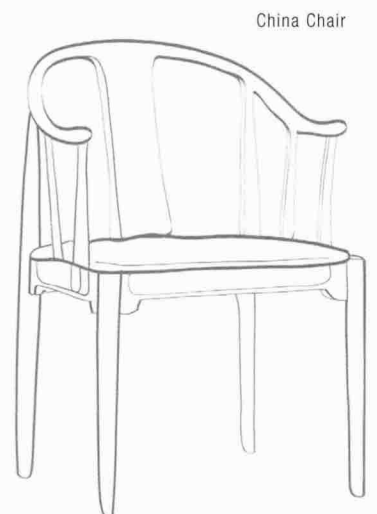
Ball Chair



CH07-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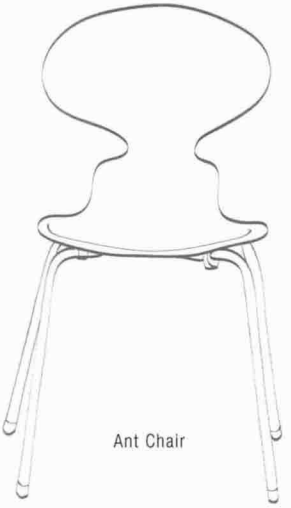


CH20-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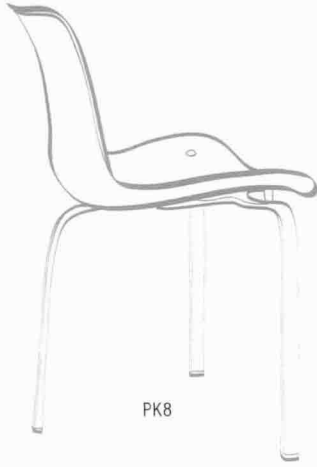


China Chair

I N A V 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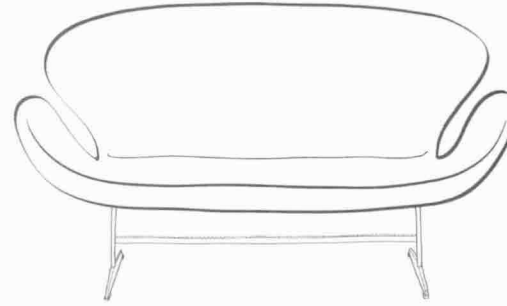
Ant Chair



PK8



Series 7



Swan So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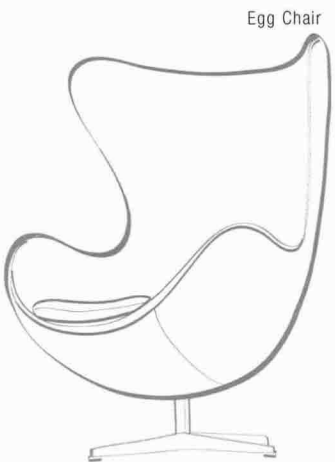
작나무 합판을 구부려 만든 '엔트 체어'도 있다. 잘록한 허리 하나로 디자인계를 평정한 이 제품은 간결한 선으로 순간의 인상을 잡아내듯 '개미'의 생김새를 포착해냈다. 하나의 판을 구부리고 스틸 다리와 결합시킨 방식은 단순하지만 스칸디나비아 모던 디자인의 상징이 될 정도로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다. 아르네 야콥센은 이처럼 장식미와 기능미를 모두 살린 현대적 가구 디자인의 대표적 아이콘을 제시하며 이후에도 엔트 체어를 변형한 세븐 체어, 백조에서 영감을 얻은 스완 체어 등을 남겼다.

20세기 전반에 나무를 구부리는 기술로 의자 조형을 한 단계 높은 핀란드의 알바알토(Alvar Aalto, 1898~1976)와 그의 뒤를 이은 덴마크 출신 디자이너 베르네르 판톤(Verner Panton, 1926~1998)도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있게 한 장본인. 특히 베르네르 판톤은 강렬한 원색의 플라스틱을 통째로 구부려 만든 '판톤 의자'를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소재와 형태의 독창성을 내세우며 20세기 불후의 명작

으로 손꼽힌다. 기하학적 형태의 '하트 콘 체어' 등도 그의 작품. 프리츠 한센, 비트라, 로얄 코펜하겐 등이 생산한 판톤의 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링을 기록 중이다.

'PK22' 라운지 체어로 국제적인 밀라노 트리엔날레 전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며 명성을 거머쥔 '디테일의 대가' 폴 키에르홀름(Poul Kjærholm, 1929~1980)도 빼놓을 수 없다.

정밀한 디테일과 유기적이면서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은 그는 목재 외에도 철재에 특히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외에도 비코마지스트레티(Vico Magistretti)와 한스 웨그너(Hans J. Wegner)가 스칸디나비아의 대표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세계의 많은 디자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유행의 변화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가구는 자연스러운 소재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실생활에 맞는 편안함을 갖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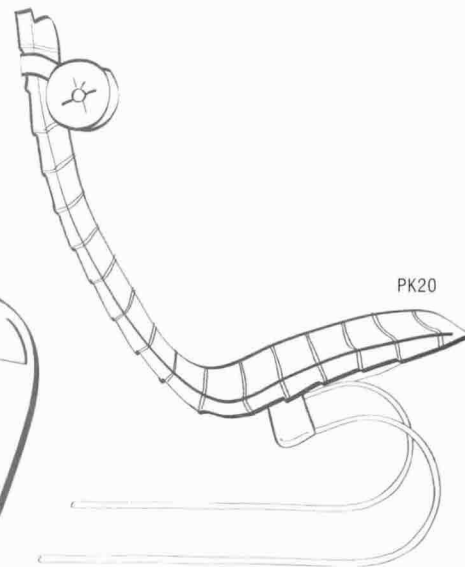
Egg Chair



Oxford



Panton Chair



PK20